

광양시 대표단, 캐나다 랭리타운십과 협력 모색

내년 '우호도시' 체결 추진 협의 산업·시설 시찰 개발 경험 공유 랭리상공회의소·KOTRA 방문 "영어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광양시 김기홍 부시장 일행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캐나다 랭리타운십(Township of Langley)을 방문해 양 도시 간 2025년 '우호도시' 체결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랭리타운십을 방문한 광양시 대표단은 에릭 우드워드 시장 및 시의원들과 만나 교류 관계 구축과 관련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랭리타운십 시의회 임시회 개최식에서는 광양시와의 우호도시 추진안건이 보고됐으며 광양시 및 대표단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양 도시의 내년 우호도시 체결 가능 여부는 랭리타운십 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그 결과를 광양시에 알릴 예정이다.



광양시 김기홍 부시장 일행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캐나다 랭리타운십을 방문해 양 도시 간 2025년 '우호도시' 체결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에릭 우드워드 랭리타운십 시장은 "광양시 대표단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방문이 우리 두 도시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은 "양 도시가 우호도시를 체결한다면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두 도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티브 퍼거슨 시의원은 "두 도시가 인구, 산업 환경 등 도시 규모 및 성장도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 기쁘다"며 "향후 두 도시 간의 교류 관계를 구축해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윈-윈 할 수 있

는 기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영현 광양시의원은 "광양시 또한 우호도시 체결을 위해서 시의회 협의 과정과 승인이 필요하다"며 "귀국 후 적극 검토 및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방문 기간 중 광양시 대표단은 랭리타운십 관계 부서의 안내를 받아 주요 산업 및 시설을 시찰하며 협력 가능 분야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자연보호 구역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문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한 데렉 더블데이 아버리턴 공원,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콘서트, 전시회 등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이벤트 센터, 수영장 및 도서관 등 시민문화공간을 집약한 월넛그로브 커뮤니티 센터 등의 시설을 둘러보며 도시 인프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광양시 대표단은 밴쿠버 프레이저항만 공사를 비롯해 1100여 개 회원사에 기업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레이터 랭리 상공회의소를 방문하기도 했

다. 광양시 대표단은 코리 레데콧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 도시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향후 상공인 간의 교류와 경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회원사인 한 캐나다 기업이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광양시는 이번 만남이 향후 실질적인 경제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항만공사 방문에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밴쿠버 사무실에 방문한 광양시 대표단은 최현수 무역관장을 만나 광양시 매일 관련 제품 등 농산품 수출 시장 진출에 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캐나다 랭리타운십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영어권 지역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며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해 광양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읍 서산교사거리 일대 일부 통제... 12월까지

교통섬 설치·횡단보도 이설 등

광양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진행을 위해 12월12일까지 광양읍 서산교사거리 일대를 일부 통제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3건 이상의 인적 사고가 발생한 사고 다발 지역 중에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다.

광양시는 광양읍 서산교사거리 일원에

△교통섬 설치(1개소) △횡단보도 이설(3개소) △신호등 설치(3개소) △표지판 이설 등의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민숙 교통과장은 "사업 기간에 통행이 불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신규 가맹점 모집

광양시가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한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남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저출생 극복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참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규 가맹점 모집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중이다.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참여 대상 가맹점은 금융업, 제조업, 유통업, 유아용품, 학

원, 안경, 음식업, 보육시설, 이·미용업 등 모든 제조·서비스업이다.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 시 다자녀행복카드 관련 금액의 카드 수수료가 전액 지원된다. 또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의 이름, 취급품목, 연락처 등이 다자녀 행복카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홍보된다.

가맹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061-797-4171) 또는 이메일(chaso97@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 보건소(061-797-475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개별 컨설팅

광양시는 16일까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개별 컨설팅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이 상호소통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3년간 매년 500만원(총 1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광양시는 지난 4월부터 2022년도에 선정된 55개 마을과 2023년 선정 45개 마

을, 올해 신규 선정된 53개 마을까지 총 153개 마을을 대상으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5년도 사업의 질적·양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이번 컨설팅은 광양읍 8개소, 옥곡면 2개소, 진월면 1개소, 다압면 1개소, 중마동 7개소, 광영동 2개소 등 총 21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양시는 마을공동체 사업, 돌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연계 사업에 대한 안내와 자문 또한 컨설팅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 10일 광양 다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면내 20개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압면 사회·봉사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광양시 제공

다압면, 사회·봉사단체장 간담회 개최

광양시는 지난 10일 다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면내 20개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압면 사회·봉사

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025년 시장·면정 주요 사업 설명과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면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상균 다압면장은 "지역 내 단체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간담회는 면내 사회·봉사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살기 좋은 다압면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24일 '2024 가을 콘서트' 개최... 가수 구창모 등 공연

광양시는 오는 24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 가을 콘서트'가 열린다고 밝혔다.

스윙피플(리드 보컬 김유하, 바이올린 서여신, 피아노 우리나라)은 감미로운 선율을 담아 '고엽', '베사메무쵸' 등의 곡으로 공연의 포문을 열고 가수 나혜진과 진철은 가을밤의 감성을 자극하는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다.

성악가 장효원(메조소프라노)과 서지영(테너)은 '살다 보면(뮤지컬 '서편제')', '남만에 대하여', 'All I ask of you("The phantom of the opera")'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준비해 잔잔한 감동과 전율을 느낄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펼친다.

클래식 공연 뒤에는 가수 이해리가 '당신은 바보야', '자갈치 아지매' 등의 노래로 관객들의 흥을 돋우고, '송골매'의 리드보컬로 활동했던 구창모는 독특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희나리', '모두 다 사랑하리', '어쩌다

마추진 그대' 등 80년대를 풍미한 대표적인 명품 곡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온라인 예매를 통해 표를 구매하거나, 광양문화예술회관으로 방문해 예매할 수 있다. 관람권 가격은 전 좌석 5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예회관팀(061-797-3602, 2529)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